

MAISTRE, Joseph Ambroise (李 신부)

- 가톨릭 신부, 프랑스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

출생	1808. 9. 19. Entremont (ajd. Glières-Val-de-Borne)/ Annecy 교구
사제수품	1832. 6. 16. Chambéry, Maurienne et Tarentaise (ajd. Annecy) 교구
아시아선교	1840. 1. 15.
조선선교	1852 ~ 1857
선종	1857, 12. 20. 충청남도 덕산 황무실에서 선종(과로사)

메스트르 신부는 1808년 9월 19일 안시(Annecy) 교구의 앙트르몽(Entremont)에서 태어났다. 1832년 6월 16일에 사제 수품을 받았다. 7년 동안 교구 본당 사제로서 활동을 하였고 1839년 이교인에게 복음을 전할 뜻을 품고 파리외방선교회(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MEP)에 들어갔다.

1840년 1월 15일 프랑스를 떠나 우선 마카오로 향하였다. 9월 21일 마카오에 도착한 그는 임지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부원장(sour-procureur)으로 일하며 그곳에서 중국과 조선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때 공부를 하고 있던 김대건과 최양업 신학생을 가르쳤다.

1842년 2월 프랑스 군함 편으로 우리 신학생들의 귀국이 결정되자 메스트르 신부는 조선 교회 선교사로 임명되어 김대건과 함께 마카오를 떠났다. 그의 요청에 책임자(le procureur général)인 리부아(Libois) 신부는 그를 조선으로 보내주었다. 거의 10년 동안 그는 때로는 바다로, 때로는 육로로 조선에 침투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다. 선교사의 입국이 불가능하게 보이자, 그는 김대건만이라도 입국시키고자 김대건과 하직하였고, 1846년 초에는 최양업과 함께 동북 국경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만주 군인에게 잡히는 몸이 되었는데, 그는 유럽인이라 간신히 풀려나 만주로 돌아왔다. 드디어 1852년 8월 29일, 예수회 회원 헤롯(Helot)의 도움으로 8월 29일 조선에 상륙해 서울로 향했다. 이는 1847년에 난파한 프랑스 군함들의 유물을 철거한다는 구실을 이용하여 중국 배를 타고 조선 서해안 고군산도(古群山島)에 이르러 상륙하는 데 성공하여 서울에 입성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미 중국에 있을 때 페레올(Ferreol, 高) 주교로부터 부주교로 임명되었고, 더구나 연장자였으므로 1853년 2월 3일 페레올 주교가 서거한 뒤부터 1856년 새 교구장이 입국하기까지 조선교구의 장상직(supérieur intérimaire)을 맡아보았다. 1856년 베르뇌(Berneux, 張) 주교가 교구장(vicaire apostolique)이 된 후에도 메스트르는 부주교(provicaire) 직을 수행했다. 그간 그는 성영회(聖孀會, 또는 거룩한 아기 선교회, la Sainte-Enfance)의 사업을 조선에서도 촉진시키고자 그는 교황청

성영회의 도움을 받아 비(非)신자들의 자녀들을 거두어 교우 가정에서 양육하게 하였다. 비록 박해로 시설을 갖출 수는 없었을지라도 어쨌든 조출하게나마 조선에서 처음으로 고아 사업이 시작되었다.

또 그는 국내에서의 사제 교육의 긴급성을 절감하고 1855년 제천(堤川) 배론에 성 요셉 신학교를 설립하고 우선 그곳의 회장인 장주기 요셉에게 신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신학교 살림을 돌보게 하였다. 새 교구장 베르뇌 주교가 입국한 후 그는 충청도로 내려와 조그마한 교우촌을 맡아 오던 중 1857년 12월 20일 과로로 쓰러졌고 충청도 덕산(德山) 황무실에 묻혔다.

<출처>

1. <https://irfa.paris/en/missionnaire/0454-maistre-joseph/>
2. 가톨릭대백과 '메스트르'

작성: 2024년 1월 23일
가톨릭대 대외협력팀